'대세' 엑소 100만장 눈앞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제2830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우조건 이기겠다"

두산 넥센 꺾고 3년만에 PO행

1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과 넥센의 경기에서 넥센을 8-5로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두산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양팀은 홈런 5방을 서로 주고 받으며 명승부를 펼쳤다 <관련기사 22면> /뉴시스

<Good Game 항복 뜻하는 은어>

'4대중독 오명' 게임한류 G.G?

한국대표 국제게임전 '지스타' 국내 메이저 업체 1곳만 참가 · 정부 '게임 색안경'에 최대 위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2005년 출범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게임업계의 위기로 연결될까 우려된다.

다음달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3이 기업과 바이어를 위한 '그들만의' 사업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까지 지스타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 서울(부산)모터쇼와 함께 국내 양대 전시회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올해는 관람객을 맞는 B2C관에 간판을 올리는 메이저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다.

이번에 B2C관에 제품을 출시하는 유명 기업은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정도이며, 포털 다음이 점사 아래 처음 온라인게임 '검은 사막'을 알리기 위해 참가한다.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국제 게임 전시회를 표방해온 지스타의 메인 전시장에 얼굴을 내미는 토종 메이저 게임사는 사실상 넥슨 한 곳뿐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B2C관은 지난해 1385부스보다 150부스 줄어든 1235부스로 운영되며, 네오사이언, 모나와 누리스타딕스, 루시미디어, 제니스, 위게이밍넷, 엔비디아, 오큘러스, 브이원, 샌디스크 등 알찬 관람객에게 다소 낯선 기업들이 진을 칠 예정이다.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B2B관에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액토즈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CJ E&M 게임빌 컴투스, 엠게임 등 메이저 업체가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지스타 2013의 이 같은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됐다. 먼저 게임 산업의 축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회는 앞으로 나올 신작을 미리 게 험하는 성격이 강하다. 제작에 최소 2년이 걸리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런 특성에 잘 부합한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은 제품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 기획에서 완성까지 이르면 한 달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어 전시회에 내놨다가는 본전도 뽑지 못하기 일쑤다.

게다가 모바일게임은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게임의 홍보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오프라인 전시장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더불어 지스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스를 확보한 뒤 마케팅을 하려면 최소 20억원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양어야 하는데 모바일게임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배경으로 정부의 '반게임' 정서가 꼽힌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정한 뒤 국가가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도 게임을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길들이기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이저 게임사들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산업협회(현 K-IDEA)와의 관계를 고려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짙었지만 이제는 '눈치 볼' 필요조차 없어진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서 지스타 참가를 더욱 꺼리게 됐다.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중독 산업으로 몰리는 마당에 해외시장 개척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올해 지스타는 자칫하면 부산, 특히 해운대구와 지역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불법 꼼짝마!

인사동·명동·이태원에 관광경찰대 101명 뜬다

서울 이태원·동대문·인사동·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광경찰대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선서문 낭독, 기마대 공연 등을 포함한 관광경찰 출범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관광경찰대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경찰관 52명, 의무경찰 49명 등 101명으로 구성됐으며 관광 관련 소양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각 관광 명소에 조별로 배치돼 외국인의 쇼핑·이동 등을 돕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불법 콜밴 영업, 관광지 범죄 예방 및 기초 질서 유지, 관광 불편 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이들은 한국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디자이너 김서룡씨가 제작한 별도의 경찰복을 입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안내전화 1330을 이용해 관광경찰에게 간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유리기자 ujeong10@

'교과서 공방' 새누리당 강은희(오른쪽)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역사 왜곡 논란 교과서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적은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사위처럼 붙여놓은 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교과서 '충돌'

여야, 국감 첫날부터 얼빈 공방… 정상회담 대화록 등도 도마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간 630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첫날인 14일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받았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유세장소에 비밀 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한 것은 대통령 기록을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을 폈다.

국방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 전투기 재검토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군사 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달 24일 위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으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법안은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폭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 선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만 있으면 어르신들 다 혜택을 주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은 못 지킨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교통위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비용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구직자 두 번 울리는 대출사기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판매해오다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등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일반인들은 빈발하는 금융사기에 무뎌진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벌인 업체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 전반의 금융 윤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현상이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적발한 사례를 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취업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고서 구직자 몰래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챙긴 경우까지 나왔다.

또 한 가상의 증권선물투자의 경우 취업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구직자들은 대출금을 날렸고 상당수가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물론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미확인 회사에 성급히 찾아간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절실한 심리를 사기 행각에 교묘하게 이용한 업체의 책임은 괘중하다.

금감원이 전국 대학교에 구직을 미끼로 한 사기대출 방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알 만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사기부터 당한다면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금융감독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정 출석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성혜장학금' 7140만원 지급

성혜장학회(이사장 김성태 한세대학교 총장)는 지난 11일 2013년도 제2기 장학생 53명을 선발하고 장학금 총 714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태 이사장은 생활 환경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장학회를 설립, 지난 6년간 총 476명에게 장학금 6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www.shscholar.com

"일제, 9세 소녀도 강제노역 동원" 공장 女노무자 평균 13세

일제강점기에 9세 아이부터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돼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을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 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고,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징용 기준이 달랐다"며 "일본은 1941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대상을 16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아동까지 강제 동원하는 만행을 부렸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국감 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가운데) 할머니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안내를 받으며 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노무자의 강제동원은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광(143건), 농장(121건), 토건 작업장(17건) 동원이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효성 총수일가 겨누나

검찰, '금고지기' 고모 상무 등 줄소환 ·수천억 탈세의혹 본격 조사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효성그룹의 회계 재무 담당 임직원들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실무진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78) 회장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조 회장과 세 아들 현준(45)·현문(44)·현상(42)씨를 비롯해 이상운(61) 부회장,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임원 여러 명 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r.kim@metroseoul.co.kr

백발 어르신들 '열정의 체조' 백발이 희끗하게 내려앉은 어르신이 14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강원도 건강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가해 건강 체조 동작을 흥겨운 음악에 맞춰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삶의 희망' 못준 자살상담

올해 스스로 목숨 끊은 학생 48% 상담 받아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3명 중 1명은 학교 내 상담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해 상담·치유 받은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17명 중 32.1%에 달하는 230명이 생전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자살 학생 203명 중 상담을 받은 학생은 42명(20.7%)이었고 2010년에는 148명 중 40명(27.0%), 2011년에는 151명 중 53명(35.1%), 2012년에는 142명 중 60명(42.3%)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47.9%인 35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윤아기자

서울시의원 의정비 최고

전국 광역 및 기초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서울 강남구의회가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올해 서울시의회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6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기초 의회 중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민준기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역 최고의 '가위손' 가린다

미용페스티벌 15일 개최… 헤어쇼 등 부대행사도 풍성

부산지역 최고 미용인의 영예를 놓고 기량을 겨루는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미용페스티벌 대회'가 15일 오전 9시부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사)대한미용사회 부산시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용인의 저변 확대와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수·관련 단체·관람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는 헤어 부문과 메이크업 부문, 네일 부문, 피부 부문 등 일반부 19종목과 학생부 33종목 총 52개 부문에 1000여 명의 선수가 미용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다. 또 헤어쇼, 미용기자재 박람회, 제품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부대 행사로 ▲부산시협의회와 업원 및 미용 관련 대학의 작품발표회인 '헤어쇼 및 작품발표회' ▲새로운 미용 제품 및 기자재 체험 행사인 미용기자재 박람회 ▲미용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제품을 소개하는 '제품 전시회'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미용 관련 업체 및 학교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지역 공연팀의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등을 펼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수 미용인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미용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트렌드를 경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용업은 최근 헤어 분야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피부, 네일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의 의료관광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조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직종으로 뜨고 있다.

/이경우기자 lyc.new@metroseoul.co.kr

뉴시스

양산 우수기업 제품 상담회 영산대학교 베트남서 마련

영산대 양산시 해외시장 개척사업단(단장 하경연)은 10월 9일 베트남 호치민시 렉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양산시 기업체들과 함께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양산시 우수기업제품 베트남 전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양산시에서 참가한 10여 개의 기업들을 위한 상담부스가 설치됐으며, 현지 기업체들이 수입계약 체결 또는 베트남 대리점 개설과 관련해 방문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에어부산 타이완 노선 취항

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내달 11일부터 부산~가오슝(타이완) 노선을 주 4회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11번째 국제 노선인 부산~가오슝 노선에는 에어버스 A321-200(195석) 항공기를 투입한다.

이 노선은 수·목·토·일요일 김해공항에서 오전 10시40분 출발해 현지시각으로 낮 12시40분에 도착한다. 반대로 가오슝에서는 현지시각으로 오후 1시35분에 출발해 오후 5시5분 김해공항에 도착한다.

타이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항구도시인 가오슝은 연중 날씨가 온화해 여행하기 좋으며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매력적인 여행지다.

한편 에어부산은 부산~가오슝 노선 취항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15만9000원(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총 운임 26만6900원)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특가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취항일인 12월1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또 10월 말까지 부산~가오슝 특가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타이완 교통카드도 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 및 모바일 웹사이트(m.airbusa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청엑스포 관람객 북적 지난 12일 경남 산청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이 약초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엑스포조직위 제공

국가하천 유지관리 평가 양산시 등 우수 지자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등 18개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북 영천시, 경남 합천군, 경남 양산시가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대구시·울산시 등 3개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27개 시·군 등 총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하천 유지 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영천시(2억원), 합천군(1억7000만원), 양산시(1억3000만원) 등 3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 하천 유지 관리비를 각각 지원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복한 노후경제 배워보세요

시 9회 걸쳐 강좌 진행

부산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인 '찾아가는 행복한 노후경제교실'을 운영한다.

노후경제교실은 부산YWCA 청춘극단과 공동으로 14일 오전 10시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복지관 등을 직접 돌며 570여 명의 노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최근 취약계층인 노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및 건강 관련 용품, 상조계약 등 손해를 끼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들을 노리는 대표적 상행위인 무료 관광·전매·권유 판매·상조회 사기 등 유형별 소비자 피해 사례를 역할극을 통해 알려주고 소비자 피해 대처 방안, 청약 철회 등 계약 취소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질진단 증상 표준화 논문 발표

부산대 사상맞춤의학연구센터는 사상 체질에 따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병리적 증상인 소증(素證)을 표준화한 연구를 SCI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가장 기초로 사용되는 소화 기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검사법으로 환자들의 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사상체질의학에서 사상 체질의 진단과 치료에는 심리적·신체적인 특징과 함께 임상 전문가의 생·병리 특성인 소증이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도 '체질별 소증까지 상세하게 포함되지 않은 진단에 의한 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소증을 표준화한 부산대 연구팀의 논문 '한국 전통 의학에 기반한 사상소화기능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는 동종 의약 분야 정상급 국제학술지인 ECAM의 최신호에 소개됐다.

사상소화기능검사(SDFI)는 소화 기능을 소화 상태, 식욕, 식습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상 체질들 간의 소화 기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해 체질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양 의학의 다양한 소화기능검사와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해 한·양방 협진을 비롯한 사상체질의학의 임상 진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

배나영 사상맞춤의학연구센터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의학인 사상체질의학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체질진단법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검사를 이용하면 체질 진단을 할 수 있어 체질의학이 보편 의학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한 이미숙 연구원은 "최신 연구에 따르면 기능성 위장관장애가 정신사회적 요인, 특히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는 사상소화기능검사(SDFI)와 사상성격검사(SPQ)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BS금융역사박물관 설립 전시유물 활용 사료 수집

부산은행은 BS금융역사박물관(가칭) 설립을 앞두고 오는 연말까지 전시 유물로 활용할 금융 관련 사료를 수집한다고 14일 밝혔다.

BS금융역사박물관은 총면적 424㎡ 규모(신사옥 1층 위치)로 부·울·경 지역 최초의 금융박물관으로 시민과 청소년들의 금융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집 대상 물품은 부산은행과 관련된 ▲문서류 ▲증서·장표·증권류 ▲기념사진류 ▲각종 시상품·기념품 ▲도서·간행물 ▲집기·비품류 등 부산은행 외 금융의 역사 관련 사료 등 소장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기증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2길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균표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옥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800
독자센터 (02)721-9866
1992년 5월 9일 등록 서울특별시 서울 라00008

부산패션위크 개막 14일 부산 ○○○○ ○○○○에서 열린 '○○○○○○○○'의 드레타로르데 ○○ ○○○○○ 패션쇼에 참여한 모델들이 다양한 의상을 소개하고 있다. 드레타로르데 부산은 올해부터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와 통합돼 부산패션위크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전시에는 국내외 섬유·패션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제품을 소개하고, 드레타로르데 패션쇼는 사흘 동안 총 15차례의 패션쇼가 열린다. /뉴시스

전세형 분양제 '주의보'

"임대 아닌 분양계약"…일부 수도권 피해자 속출

2년을 전세처럼 들어와 살다가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전세형 분양제에 대해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세형 분양제는 분양 금액의 20~30%, 주변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 살아보고 2~3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애프터리빙·프리리빙제·리스크프리·저스트리브·스마트리빙제·신나는 전세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명칭만 다르고 골자는 비슷하다.

부산의 경우 북구 화명동 L아파트 L건설(523세대) '리스크프리' 방식은 분양가의 일부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대출이자를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해운대구 W아파트 D건설(1788세대) '저스트리브' 방식은 계약금만 내고 2년간 거주 후 매입을 결정한다. 연제구 Y아파트 G건설(1598세대) '애프터리빙' 방식은 계약자가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제도로 2~3년간 살아본 뒤 분양을 원치 않을 경우 건설사에 환매해야 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경기 덕양을) 의원이 인터넷과 건설사,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25개 아파트(3만2541가구)에서 애프터(프리)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 마케팅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가 관리비도 대신 내주고 분양 면적에 따라 많게는 매월 100만원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발레파킹, 요트클럽 이용, 헬스클럽 개인 강습 무료 등 각종 편의 제공도 파격적이다.

건설사로서도 당장 비어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채울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한 채당 수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입주자도 좋고 건설사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 전세형 분양제 입주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지만 실제 계약 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원상복구)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전세형 분양제가 2~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들로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고래바다여행선 타고 부산 불꽃축제 가자!

울산 남구 특별운항

이달 26일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를 고래바다여행선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울산 남구는 광안대교를 무대로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인 제9회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고래바다여행선을 특별 운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는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끝에 울산해경에 유선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16일 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 후 17일부터 23일까지 승객을 모집할 계획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0명, 요금은 9만원이다.

불꽃축제 관람일인 26일 고래바다여행선은 저녁 6시30분 대변항을 출발해 8시부터 광안대교 해상에서 펼쳐지는 불꽃쇼를 관람한 후 저녁 10시 돌아오게 된다.

울산에서 기장 대변항까지는 관광버스로 왕복 이동할 계획이다.

예약은 고래바다여행선 홈페이지(www.whalecity.kr/whale)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래관광과(052-226-3406~7)로 문의하면 된다.

연 최고 370% 고금리 챙긴 부산 원정 사채업자 검거

대구에서 부산으로 원정 와 도심 아파트와 원룸에서 합숙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4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일수 광고 명함을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서민 등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사채업을 한 A(27)씨 등 4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B(34)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65회에 걸쳐 매일 4만원씩을 일수(연 금리 304.5%)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00여 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최저 165%에서 최고 370%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북과 대구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1년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구 문현동과 북구 구포동, 부산진구 전포동, 사상구 괘법동 등지에서 아파트와 원룸 12개를 빌려 사무실과 합숙소로 사용하며 불법 사채업을 일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2020.27	(-4.83)
코스닥	531.55	(-0.94)
금리	2.82	(+0.02)
환율	1072.00	(변동 없음)

사망자 계좌로도 입금 가능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계좌와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제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상반기 보험사기 15% 급증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267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과다 사고 적발액이 1834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또 고의 사고 410억원(15.9%), 피해 과장 135억원(5.3%) 등이었다. 허위·과다 사고 중에서는 사고 내용 조작(17.0%), 음주·무면허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0.2%) 등이 많았다. /김민지기자

동일업종내 주가 격차 감소

올해 들어 업종 내 종목 간 주가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8개 업종의 최고가와 최저가 종목 간 주가 배율(최고가/최저가)은 지난해 말 303.12배에서 이달 8일 기준 712배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비금융이며 유통·통신·의약품·의료정밀은 차이가 더 벌어졌다. /김현정기자

'중기 적합업종' 손 못뗀 대기업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4곳 적발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중앙회·전경련과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현장 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링유니트'에 대해 '확장 자제'를 권고받았지만 포스코건설에 납품했다. 또 LS산전은 '사업 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 양복' 업종에서 '진입 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 금지'를 권고받았지만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 철수를 권고받았지만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선 연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했지만, 오영식 의원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위반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h@metroseoul.co.kr

'아저씨 정장' 찢고 '오빠 정장'으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하모 앞에서 열린 'F/W 비즈니스 캐주얼 제안 패션쇼'에서 직장인 모델이 오려진 정장 아래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시장 '단풍보다 진풍경'

위례 '송파 와이즈 더샵' 등 견본주택마다 수만명 몰려

아파트 분양 시장에 가을 훈풍이 불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견본주택마다 방문객이 수만 명씩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C1-4블록에 시공하는 '송파 와이즈 더샵' 견본주택에 11~13일 사흘간 예비 청약자 2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같은 기간 동원개발이 미사강변도시 A22블록에서 선보이는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견본주택도 2만10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았다.

이처럼 예비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는 올해 가을이 연중 최대 분양 성수기인 데다 8·28 대책 이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곡지구다 위례신도시 등과 같은 생활 편의성이 높은 알짜 택지지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마곡지구는 인근 아파트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 실수요 측면의 장기적 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인근으로 분양가가 3.3㎡당 1700만~1800만원 선으로 경쟁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정은지기자 ezi@metroseoul.co.kr

깜찍한 싱글 가전 다 모였네 14일 서울 독산동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싱글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138개 매장 중 100곳에서 싱글 가전존을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제공

한국 스마트폰시장 포화

美 SA, 올해 판매량 2630만대로 첫 감소 전망
"세계 최고사양 대중화 – 보조금·혁신 없는 영향"

소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을 만한 혁신이 사라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14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630만 대로 지난해 3070만 대보다 약 14%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2007년 이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뒷걸음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7년 20만 대에 불과했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10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해 690만 대 규모로 성장했다. 2011년 1750만 대로 대폭 늘어난 후 2012년에는 3070만 대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SA는 올해 주춤한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기록한 판매 대수 3000만 대 고지는 다시 오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SA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1억7340만 대 규모에서 올해 3억1550만 대로 급성장한 후 2018년에는 4억2420만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해 1억1490만 대, 올해 1억4300만 대, 2018년 1억7690만 대가 될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해 2050만 대에서 2018년 1억4000만 대로, 일본도 지난해 3650만 대에서 2018년 4740만 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으로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삼성과 애플 맞대결 구도가 펼쳐지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고사양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다"며 "지난해 스마트폰이 3000만 대 팔렸다는 것은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규제, 혁신 부재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 여파로 가격은 비싸졌는데 까다로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lmlee@metroseoul.co.kr

30대그룹 회사채 80조 '훌쩍'

SK 11조4100억 최대규모
내년말까지 29조 만기도래

30대 그룹의 미상환 회사채가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14일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30대 재벌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80조9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회사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공모·사모 회사채 기준이며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제외됐다.

그룹별로 SK가 하반기 1조34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는 것을 비롯해 미상환 회사채가 11조4100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또 현대차가 8조410억원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진이 6조660억원, 롯데가 6조4096억원, 삼성이 6조2990억원의 순으로 미상환 회사채 규모가 컸다.

LG 5조6560억원, 두산 4조8880억원, 신세계 2조8860억원, CJ 2조6400억원, STX 2조4700억원, 한화 2조2900억원, 현대 2조1800억원, 동국제강 2조800억원 순이다.

현대중공업 1조7900억원, 코오롱 1조7400억원, GS 1조6630억원, 동양 1조4980억원, 동부 1조4590억원, 금호아시아나 1조3200억원, 현대중공업 1조2500억원, LS 1조2000억원으로 만기를 앞둔 회사채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특히 동양 등 일부 재벌 그룹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를 맞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28조96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주목된다.

/박태근기자 ksa 19

"모닝콤보 세트 2000원에 드세요"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던킨도너츠 모닝콤보 출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모닝 제품 1개와 음료로 구성된 모닝콤보 세트 4종의 가격은 2500~3000원으로, 28일까지 2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80세도 가입 '진정한 실버암 보험'

라이나 무배당 갱신형 상품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문의 (080)951-8585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잡코리아 '대학생 해외탐방'

●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대학생 해외탐방 지원 프로그램인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소재의 2·3·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휴)학생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취뽀스터디서 모의 'SK 고사'

● 취업교육포털사이트 '취뽀스터디'(www.chippostudy.com)가 SK그룹의 종합역량검사인 SKCT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학습 자료와 온라인 모의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뽀스터디 회원으로 가입하는 구직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강세장 앞둔 '마지막 진통'

국내 증시 전문가들 '장밋빛 4분기' 전망 잇따라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연달아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 경제성장 등의 호재가 나오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美 불확실성 완화·中 회복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장 진입을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을 겪는 중"이라며 "미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하면서 중국·유럽 등의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정치권의 협상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또 지난 9일 발표된 독일의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유럽의 경기회복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고 중국도 국경절 연휴 기간에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 분석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참고할 때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은 투자 유망 지역"이라며 "외국인의 매수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점도 국내 증시 상승의 근거로 꼽혔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 재정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에 눈길이 쏠렸다"고 전했다.

하반기 유망 종목이나 업종으로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중소형주와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거론됐다.

전상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의 경우 수익률이 바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만 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에서 이익을 보는 국내 소재·산업재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 업종 내 오는 3~4분기 순이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khkim@metroseoul.co.kr

'美 디폴트' 시한 나흘 앞으로

세계 금융 전문가들 "일어나지 않을 일" 분위기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글로벌 시장이 초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무부가 증액 시한으로 경고한 날짜인 17일(현지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그동안 현재 16조7000억 달러(약 1경7900조원) 규모인 부채 한도에 맞추기 위해 각종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17일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시한 내에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기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정부가 시한을 넘기고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에 설마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져 실제 디폴트 발생 직전에 타결하더라도 연말 장세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4분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커지겠지만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겪을 혼란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이상재 연구원은 다음달 초 미국 디폴트가 현실화한다면 "금융 패닉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불안 심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2011년 8월과 유사한 충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희기자

국감장 데뷔한 미래부 '뭇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호가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여부, 창조경제 구현방안 등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14일 미래부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은 시작부터 호통으로 시작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미래부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휴대전화 유심(USIM) 도입 배경, 최근 5년간 케쥬대전화 수거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미래부는 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한선교 위원장은 "그렇게 답하면 끝나는 거냐. 어느 실무자가 자료 제출 보고받았나. 이러니까 대변 자료 제출 가지고 실랑이하는 것 아니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자료 미제출 문제는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법원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항소를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미래부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고 역정을 내놓았다.

/이세경기자 sy9433@

뉴스&뉴스

직장인의 결혼자금 규모 男 8300만원 女 4400만원

● 우리나라 직장인이 결혼하려면 남성 평균 8300만원, 여성은 4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자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응답자의 17%는 결혼을 위해 평균 1억~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5000만~6000만원(13.5%)이 거론됐다. 여성은 2000만~3000만원(31%), 3000만~4000만원(26.2%) 순으로 답했다.

직장인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은 '신혼집 마련'(38.3%)이었다. /윤승희기자

예술의 전당 가을 콘서트 KT스카이라이프로 본다

● KT스카이라이프가 12일 예술의전당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고 'KT스카이라이프 뮤지컬과 예술의전당이 함께하는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스카이라이프는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활용해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양측은 이번 제휴의 첫 번째 콘텐츠로 '사랑과 만남, 이별 그리고 가을'이라는 주제로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정의근, 바리톤 박경준 등이 출연했다. /이지웅기자

닛산 소형 SUV '쥬크' 출시 한국닛산은 14일 소형 SUV '쥬크'를 출시했다. 1.6 가솔린 터보엔진을 장착한 신차의 가격은 2690만원, 289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

'선물투자 구인광고' 낚여 400명 50억 피해

금융 당국은 14일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가짜 증권선물투자회사 직원 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다음 구직자에게 취업 조건으로 계좌당 500만원이 입금된 증권선물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매일 2만원(1계좌)~18만원(4계좌)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도 시켜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대출금만 가로챘다. 피해자는 약 700여 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다. 이 중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현재 400여 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해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global

metro HongKong

盤「書」洞耀

metro Mexico

Jóvenes, sin emp

86%

청년 51%, 부모 곁 안 떠나는 '캥거루족'

멕시코 청년 절반이 독립을 미룬 채 부모와 사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청년의 51%가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 과거 멕시코에서는 20세 전후로 독립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청년들은 독립을 자꾸만 미루고 있다.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청년 실업률은 8.2%에 달한다.

metro Brazil

Mega-Sena. Ganhador não vai buscar prêmio

R$ 23 mi

1117억 복권 당첨 주인공 끝내 안 나타나

브라질에서 2억3000만 헤알(약 1117억원)의 복권 당첨금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남부 파라나주의 폰타그로사에서 복권을 구입한 신원 미상의 주인공이 90일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만약 당첨자가 상금 전액을 은행에 예금했었다면 이번주까지 이자로만 약 34만5000헤알(1억 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금 전액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책 안 사도 눈치 안 주는 서점

중국 난징 셴펑서점 "책 편히 읽고 가라" 300석 도서관까지 마련…'독자들의 천국' 목표

최근 미국 CNN은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시의 셴펑(先鋒)서점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 서점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외관이나 눈에 띄는 간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서점은 볼품없는 지하 차고에 위치해 있다.

셴펑서점 주인 첸샤오화는 50대 중년으로 1999년에 난징시 우타이산(五台山)체육관 지하 차고를 샀다. 원래 이곳은 방공호였다가 정부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난징대학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셴펑서점은 난징대학 제2의 도서관이 됐죠.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베스트셀러 책장이 아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다. 서점의 계산대도 수많은 책을 쌓아 만들었다. 1층과 2층 사이의 경사로 가운데에는 주차장으로 쓰일 당시 그려진 노란색 차선이 있고 양쪽에는 책들이 쌓여있다. 뒤를 돌아보면 빛이 나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천장에는 그림들이 걸려있다.

처음 셴펑서점을 열 무렵 첸은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는 서점의 위치를 난징 성바오로대성당 맞은편으로 정하고 매일 가서 찬송가를 들었다. 그 당시 서점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우타이산 본점의 규모는 4000㎡나 된다.

하지만 종교가 셴펑서점의 유일한 특징은 아니다. 문화정신이야말로 서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독서는 신앙이, 셴펑서점은 독서들의 천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점에서는 자주 문화 강좌가 열리고 서점 내 카페에서는 고객들이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디자인이 뛰어난 도서들만 전시된 코너도 있고, 난징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파는 코너도 있다.

그는 셴펑서점을 공공도서관으로 여긴다. 서점 2층에는 좌석 300여 석이 마련돼 있어 책을 사지 않는 고객들도 편히 책을 보도록 했다. 그는 "독서 공간과 풍부한 서적을 제공하는 서점이 좋은 서점"이라고 강조했다.

셴펑서점을 찾는 발길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점은 난징의 랜드마크가 돼가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Sweden

abbdjuret g… nnlar unde…

옴벌레 급속 확산 원인은 태블릿PC?

스웨덴에서 옴벌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옴벌레 전염 확산의 주 요인이 태블릿 PC와 TV 게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옴벌레는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거미 형태를 띤 진드기로 사람의 피부 안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 자기들만의 통로를 만든다. 그 안에서 알을 까기도 하며, 부화한 애벌레들은 그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면 다시 피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 옴벌레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증을 겪는다. 이 가려움증은 오래 가면서도 그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옴벌레를 박멸하는 치료 연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 베름란드와 스코네 지역에서는 무려 80%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25%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릴리라이에 페르손 스카라보리 병원장은 옴벌레 전염이 주로 젊은층에서 일어나는데 피부 간의 접촉을 유발하는 태블릿 PC와 TV 게임이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옴벌레가 다른 사람의 피부에 파고드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태블릿 PC 판에서 평균 600마리의 박테리아가 발견됐고, 스마트폰에서는 평균 140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 반면 변기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는 20마리에 불과했다. /노한 요한슨 기자

정리=장윤희 인턴기자

IT업계 'SW기부' 뜨겁다

MS '오피스 365' 기증 대표적· 사회적 책임·홍보·고객확보 '1석3조'

IT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기부 바람이 훈훈하게 불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함께 자사 프로그램 홍보 가외도 얻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한번 이용하면 꾸준히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IT 시설 투자가 어려운 비영리기구 및 비영부단체들을 위해 '오피스 365'를 무료로 기증하고 있다. 이 기증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89개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MS는 1983년부터 전 세계 비영리단체들에 65억 달러 이상의 지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기증

해왔다.

압축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는 정보 소외계층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증 컴퓨터에 알약 등의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15억원 상당의 기부 행보를 보였다. 이스트소프트는 '이스트소프트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뿐 아니라 전문 지식 공유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한컴오피스 2014'를 출시하며 캠페인 '당당하라 대한민국 당당하라 오피스'를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제품을 이번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컴은 신제품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제품 기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훈 한국MS 상무는 "소프트웨어 기증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이들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metroseoul.co.kr

'공항패션 종결자' 콘테스트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주최로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항패션 종결자 시즌 3' 이벤트에서 모델들이 연출한 사진을 포토존에 붙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6일까지 김포국제공항,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주공항에서 진행되며 개월 1명을 공항패션 종결자로 선정해 경품으로 제주 왕복 항공권 1개를 증정한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델들이 올림푸스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OM-D E-M1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혹한에도 1628만 화소 찰칵!

올림푸스 새 미러리스 'E-M1' 최고화질 자랑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렌즈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1628만 화소를 자랑하는 고화질 미러리스 카메라가 등장했다.

올림푸스한국은 14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러리스 카메라 시리즈인 OM-D의 최신 제품 E-M1을 공개했다.

1628만 화소의 이 제품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화상 처리 엔진을 통해 역대 올림푸스 카메라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DSLR 카메라 표준인 포서드 체계와 미러리스 카메라 표준인 마이크로포서드 체계를 통합해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는 물론 DSLR 카메라용으로 나온 렌즈도 장착할 수 있다.

또 방진·방적 기능과 함께 영하 1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까지 갖췄다.

카메라 무게는 보디 443g(배터리와 메모리 포함 시 497g)이며, 높은 강성을 자랑하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됐다.

올림푸스는 11월 정식 발매를 앞두고 오는 19·20일 소비자들이 OM-D E-M1을 직접 만져보고 촬영할 수 있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6일까지 올림푸스 홈페이지(www.olympus.co.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

광학 10배줌 LTE폰 "디카 비켜!"

삼성전자 '갤럭시S4 줌' 카메라 기능 시선집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광학 10배 줌 기능을 지닌 LTE 스마트폰 '갤럭시S4 줌'을 14일 국내에 출시한 가운데 이 제품이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갤S4 줌은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쓰는 일반 갤S4와 달리 1.5GHz 듀얼코어를 사용하지만 카메라 기능에 중점을 뒀다.

피사체를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학 10배 줌을 지원하며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광학 10배 줌, '1600만 화소'는 적어도 중급 이상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만큼 스마트폰임에도 충분히 디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카메라 경통을 돌리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는 '줌 링'으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수 있으며 일반 카메라와 동일한 촬영 버튼과 그립감을 제공한다. 다만 기존 갤S4와 달리 휴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사진 품질이 상위의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 제품 포지션이 애매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소니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엑스페리아 Z1'의 성능이 만만치 않아 이 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성훈기자 ...

사이버 범죄 피해자 여성보다 남성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로 공개된 와이파이(무선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사용자는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보안 솔루션업체 시만텍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 노턴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용자는 2012년 46%에서 올해 41%로 감소했지만 1인당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지난해 197달러에서 298달러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4세 연령 중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이 66%로 45~64세(54%)보다 많았다. 또 남성(64%)이 여성(58%)보다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현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데뷔 최초 래퍼와 공동작업

가수 **신승훈**이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래퍼와 공동 작업을 했다.

신승훈은 4년만에 새 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를 발표하는 가운데 17일 발표할 선공개곡 '내가 많이 변했어'에서 다이나믹듀오의 최자와 호흡을 맞췄다. 소속사는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 힙합 비트가 어우러진 중독성 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피아노·R&B 조화된 음반

가수 **케이윌**이 18일 새 음반을 발표한다.

그는 김도훈 어년영자기 더 네임 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제작에 참여한 이번 앨범에서 피아노 연주와 복고 스타일의 R&B 리듬이 어우러진 '촌스럽게 왜 이래'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소속사는 "이번 음반을 위해 훌륭한 작곡가들로부터 수백 곡을 받았다.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번엔 캐나다서 공연·기부

가수 **김장훈**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예술센터에서 전니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공연을 개최했다.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개선을 위한 기부를 펼쳐온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토론토대에서 강연하고 이곳의 도서관이 소장 중인 아시아 서적 가운데 한국 서적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섹시+청순 '프리마돈나' 발표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14일 정규 1집 '프리마 돈나'를 발표했다.

음원 출시와 함께 이날 공개한 뮤직비디오에서 나인뮤지스는 웨스턴 스타일의 카우걸로 섹시하면서도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노을 지는 갈대숲에서 모노톤의 의상과 청순한 이미지로 매혹적인 여성의 매력을 드러냈다.

상영 12일만에 170만 돌파 흥행질주 '소원' **이준익 감독**

"아동성폭행 소재 부담 없었다면 거짓"

명화 '소원'이 지난 주말 전국에서 44만4551명을 불러모아 상영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171만9772명을 기록하며 흥행 순항 중이다. 그러나 메가폰을 잡은 이준익(54) 감독은 작품의 성공을 만끽하기보다 그저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한 표정이다. 평소 달변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상업영화 은퇴 선언을 3년 만에 번복한 계기와 '소원'의 메가폰을 잡은 이유와 관련해선 예전과 달리 최대한 말을 아끼기며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다.

> 피해자 후유증 극복 초점
> 영화보고 안도감 느꼈다면
> 그건 나에게 최고의 칭찬
> 물 흘러가듯 살고싶어요

– 앞으론 트위터로 은퇴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SNS에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그만...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좀 봐달라. (웃음)

– 저予산으로 제작을 겸하지 않은 영화다

제작비가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연출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 처음 연출 제의를 받고 나서 고민이 많았을 듯 싶다

시나리오 자체만 놓고 보면 워낙 완성도가 뛰어나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재(유아 성폭행)가 소재인 만큼 매우 조심스러웠다.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 주인공 소원(이레)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른 상업영화들처럼 소재와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이 나올까봐 마음을 졸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다행히 보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이다. '잘 만들었다' '훌륭하다' 등과 같은 반응보다도 말이다. 촬영은 물론 편집 과정에서 불순한 태도가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도 흥행만을 위한 극적인 장치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설경구·엄지원을 비롯한 전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가 올바른 자세로 임한 덕분이다.

– 피해자의 후유증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치유하는 일종의 '동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코코몽을 등장시킨 것도 그래서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소원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희망을 말하고 싶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응징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도덕관념의 주체 의식이 바뀌었다고나 할까? 오십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소원 역의 이레양은 어떻게 캐스팅했나? 연기 경험도 전혀 없었다는데

눈빛을 보고 캐스팅을 마음먹었다. 잘 자란 아이들은 눈빛이 맑다. 이레양이 바로 그렇다. 실은 이레양의 부모님이 줄거리를 전해듣고 처음에는 출연을 반대하려 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레양 본인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이레양이 "영화인데 뭐 어때"라고 답했다더라. 이 모습부터가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하나. 촬영 과정에선 수시로 (이레양의) 부모님과 상의하고 극중에도 나오는 상담센터를 찾아 자문과 상담을 구하는 등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온 신경을 기울였다. 이레양이 만약 영화를 찍고 나서 마음을 다치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해서였다.

– 차기작이 궁금하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다. 이 판에서 모든 걸 경험했나. 수십억원대의 빚도 져보고 ('왕의 남자' 로) 1000만 감독도 돼봤다. 아무 준비 없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 그저 노력하겠다면 너무 무책임해 보일까. (웃음)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미란가와코드이미지 디자인/김어날

롯데리아

스케일이 다른 라지세트로 무료 업그레이드!

(와일드 쉬림프 버거 세트 또는 새우버거 세트 구매 시)

더 화려해진 '헝거게임'

아카데미 수상 호프먼 등 특급배우 가세

올가을 최고 흥행 예정작으로 꼽히고 있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특급 배우들과 스태프의 합류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잔 콜린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가상의 독재국가 판엠을 배경으로, 소녀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살육 경기인 헝거게임에서 살아남아 민중 혁명을 주도한다는 줄거리다.

지난해 개봉됐던 1편 '판엠의 불꽃'은 지구촌 전역에서 흥행 수입으로 무려 6억9124만7768달러(약 7403억원)를 올려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뒤를 잇는 인기 시리즈물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샘 클라플린 / 줄리앤 무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제니퍼 로렌스가 '캣칭 파이어'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역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헝거게임의 새로운 운영자로 가세해 무게감을 더한다.

또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새내기 미남 스타 샘 클라플린이 헝거게임에 출전하는 피닉 오데어 역을 맡아 신선한 매력을 발산한다. 여기에 연기파 줄리앤 무어가 3편 '모킹제이 파트1'과 4편 '모킹제이 파트2'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연진 명단은 더욱 화려해질 전망이다.

필립 시모어 호프먼

반면 스태프의 면면도 출연진에 못지않다.

아카데미 각색상 수상작인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사이먼 뷰포이 작가와 '미스 리틀 선샤인'의 마이클 안트 감독이 스토리를 맡았고 '나는 전설이다'와 '콘스탄틴'의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새로 잡았다.

한편 '캣칭 파이어'는 미국을 제치고 다음달 11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32화 글·그림 이기

리디북스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시중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영화 '토르: 다크 월드'의 배우 톰 히들스턴(왼쪽)과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대표가 14일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박찬욱 감독 작품 어메이징"

토르 톰 히들스턴 내한 "공항찾은 500여 한국팬에 감동"

영화 '토르: 천둥의 신'의 속편 주역인 톰 히들스턴이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2년 만의 속편인 '토르: 다크월드'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히들스턴은 14일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00이 명의 팬이 공항에 모였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 처음 왔는데 따뜻하게 반겨주셨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들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히들스턴은 "홍상수·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흥미롭게 봤다"며 '밤과 낮' '괴물' '올드보이' 등 이들의 영화 제목을 정확히 언급하며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홍상수·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화는 어둠의 종족이 신들의 고향 아스가르드와 지구를 점령하자, 토르(크리스 헴스워스)가 동생 로키(톰 히들스턴)에게 위험한 동맹을 제안하는 내용을 그렸다. 1억5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전편은 그 세 배에 달하는 4억4932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둬 국내 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속편에는 주인공 헴스워스를 비롯해 내털리 포트먼, 앤서니 홉킨스 등이 출연하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연출한 앨런 테일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전편에 이어 형과 대립하는 로키 역을 맡은 히들스턴은 "로키는 악당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가 지닌 질투·야망·자부심·허영은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온다. 심리 분석을 통해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언맨' 시리즈, '토르' 시리즈 등의 원작을 영화화한 마블 스튜디오의 총괄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꿈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기술적 진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블코믹스 원작 영화의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BIG SALE

Special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중국 VS 동남아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중국여행

1.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 23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2. **황산** ★ 힐링여행 4일/5일 |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 **상해/항주/주가각** 4일 |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 5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6일 | 749,000부터
   ▶10월~11월 매주 월, 수, 목, 금, 일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6. **홍콩/마카오/심천** 4일/5일 |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7. **석가장/태항산/면산/평요고성** 5일 | 449,000부터
   ▶10월~11월 매주 수, 토요일 출발(일부날짜 제외)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동남아여행

1. **대만(야류, 온천, 화련)** 4일 |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2.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 **보라카이** 4일/5일 |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6.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 46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7.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5일 | 3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www.hanatourist.com

JULIA JORDAN JULIANA NASH

MUSICAL

MURDER BALLAD

뮤지컬 머더 발라드

2013.11.05 ~ 2014.01.26

롯데카드 아트센터(합정역 메세나폴리스 2F)

최재웅 강태을 한지상 성두섭
임정희 장은아 [illegible] 박은미
홍경수 김신의 홍륜희 문진아

예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김수로프로젝트 7탄

왕가네 식구들 막장 달고 또 달린다

시청률 30% 재돌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시청률 30%를 다시 돌파하며 본격적인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14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이 드라마는 전국 기준 시청률 30.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12일 방송분보다 7.3%포인트나 치솟았다.

앞서 지난달 말 방송됐던 10회는 30.3%를 기록하며 처음 30%대로 진입했다.

이달 들어선 처가살이에 시달리는 첫째 사위 고민중(조성하)이 첫사랑 오순정(김희정)을 그리워하고, 철없는 둘째 사위 허세달(오만석)이 불륜에 빠져들면서 '막장' 논란이 시청률 상승을 거들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

이영현 연예계종사자와 결혼

4인조 여성 보컬 그룹 빅마마 출신 가수 이영현이 다음달 2일 논현동 아기찌하우스에서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연예계 종사자 조모씨로 이영현이 과거 몸담았던 기획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2003년 빅마마로 데뷔한 이영현은 2009년 솔로로 변신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굿 닥터'의 OST에 참여했다.

/[illegible]기자

대세그룹 엑소의 미소

정규 1집 판매량 91만장 돌파…밀리언셀러 등극 초읽기

대세 그룹 엑소가 국내 음반 시장에서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등극을 노린다.

엑소는 11일까지 1집 44만1332장(6월 3일 출시), 1집 리패키지 46만9641장(8월 5일 출시) 등 총 91만973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앨범 판매량 90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 새로운 음반킹으로 자리매김했다.

정규 1집 'XOXO(키스&허그)'는 현재도 음악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곧 100만 장 돌파의 대기록을 달성할 전망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기록은 김건모 7집, god 4집 등이 발표된 2001년 이후 전무했으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 시장이 붕괴된 후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시장이 등장한 2005년 이래 최초의 일인 만큼 엑소의 밀리언셀러 등극 여부에 가요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엑소는 9월 초 앨범 발매 3개월 만에 74만 장이라는 압도적인 판매고로 국내 가요계에서 12년 만에 앨범 판매량 70만 장이 넘는 진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2013 최고의 음반킹임을 과시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한국대학신문
www.unn.net
campus

25

요즘 뜨는 주방용품 '뚜껑 분리형'

패킹 사이 찌꺼기 제거 쉬워 위생적 관리에 도움

음식이 직접 닿는 주방용품은 무엇보다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에는 세균 번식에 신경쓰면서도 날이 선선해지면 위생에 소홀해지기 쉽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과 음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주방용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통 텀블러를 세척할 때 뚜껑과 본체만 분리해서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뚜껑과 패킹 사이의 음료 찌꺼기를 제거하기 어렵다. 써모스 'JNL'의 음용구는 마개본체에서 원터치로 쉽게 분리되고 패킹 또한 탈부착이 쉬워 입이나 음료가 직접 닿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테팔 '블라엔베이스트' 블렌더는 버튼 한번만 누르면 용기와 칼날하 쉽게 분리되 간편 세척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출시된 미니 블렌더 중 최초로 유리 용기를 적용해 내구성은 물론 위생성까지 강화됐다.

깔끔이도 속까지 씻을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네오플램의 '항균 칼블록'은 밑부분을 살짝 돌려주면 간단히 분리돼 내부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윗부분 뚜껑도 분리가 가능해 손을 넣어 내부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기존 밀폐용기는 뚜껑과 용기만 닦을 수 있었다면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뚜껑 안까지 세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리빙 브랜드 옥소의 '원터치 밀폐용기'는 뚜껑이 3중으로 분리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치원기자 eew@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1~4호선 역사내 미샤매장 2015년 7월까지 운영 지속

●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역구내 동종업종 입점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했다. 그러나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입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쌤소나이트 17일 바자회

●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쌤소나이트가 17일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희망의 망고나무' 후원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쌤소나이트·쌤소나이트 레드·아메리칸 투어리스 'Y-3' 제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바자회 판매수익금 일부와 입장료(1000원)는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나무'에 기부된다.

로젠빈 '갱년기 응원' 캠페인

● 뷰무원건강생활의 갱년기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체 로젠빈은 갱년기로 힘든 엄마를 응원하는 '엄마 갤러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젠빈의 캠페인 홈페이지(www.rosebean.com)에 접속해 엄마의 추억이 담긴 젊은 시절 사진과 메시지를 등록하면 편지가 담긴 동영상 갤러리를 완성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로젠빈을 선물로 증정한다.

흑임자 너비아니·곰탕 40% 할인

강강술래 창립 24주년 온·오프라인 사은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 감사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몰(www.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1%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kg)를 40% 할인된 2만1500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1만8900원, 10팩짜리 소용량세트(350㎖·20인분)는 3만77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시 올리브 주방 회전용(1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준다.

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찰진한우떡갈비(3세트·1,08kg)는 4만2000원 등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신림점에서는 오픈 13주년을 기념, 이달 26일까지 강강술래 왕양념갈비 메뉴(해피아워·점식류 제외)를 매장에서 시키면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한우불고기를 무료로 포장해준다.

또 강강술래 왕양념갈비 포장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냉면 무료쿠폰 1매, 10만원 이상은 2매를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메리 포핀스' 2인 공연 티켓, '아메리카핫요가'의 VIP 요가복세권, '아르페지오'의 원적외선 침구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아웃도어스에선 망설이면 품절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27일까지 혜택 풍성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가 오픈 2주년을 맞아 2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아웃도어스 홈페이지에 2주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긴 총 2222명의 선착순 고객에게 에너지 음료 및 던킨 도너츠 등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와 함께 '망설이는 순간 품절' 메가 세일'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루 세 번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구스다운재킷·등산용품·스포츠웨어 및 용품 등을 최대 90% 할인된 초특가로 선착순 판매한다.

우수고객을 위한 'VIP 멤버십 라운지'도 오픈, 아웃도어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매년 진행되는 '제4회 해피위켄드' 행사는 26일에 열린다.

아웃도어스는 올해의 테마를 '소백산 트레킹'으로 정하고 80명의 고객과 함께 소백산 단풍놀이 '여행 스케치'에 나선다.

행사는 당일치기로 진행되며, 코스는 천미의 골짜기 희방계곡을 따라 연화봉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 탐방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웃도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웃도어스 김대홍 팀장은 "오픈 2주년을 맞아 고객 사랑 보답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더불어 해피위켄드 행사로 소백산 등산을 통해 고객과 함께 가을 정취의 절정을 만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www.outdous.com

/박지원기자

코레일 국내 최초 미사열차 독산성당 신자들 신난 여행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 13일 독산동성당과 함께 국내 최초로 미사열차(사진)를 운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열차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색적인 미사가 진행되는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이날 독산동성당의 450여 명의 신자들은 열차에서 미사를 보며 춘천까지 이동, 연계 버스를 이용해 화천군 파로호 안보전시관·평화의 댐·딴산유원지·토속어류 체험관·붕어섬 등을 당일 코스로 여행했다.

한편 19일에는 영등포성당 미사열차가 영등포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무료 수술

엄홍길 휴먼재단 후원캠페인 "신청하세요"

과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신체도 노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장년층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퇴행성관절염

사람이 체중을 모두 받게 되는 무릎은 우리가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다. 체중을 받치며 걷고 때로는 외부 충격을 받으며 무릎의 노화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지나 결국 무릎의 연골은 점점 닳게 된다. 뼈와 뼈가 부딪치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으면 결국엔 뼈가 서로 맞부딪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관절염이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와 중기에는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말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자게 될 정도다. 또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점차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휘게 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국내에서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약물이나 수사 요법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현재는 진행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케 한다. 즉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관절 대신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런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후에는 2~3주가량 입원을 해야 해 입원비와 간병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 등도 있으며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치료 방법이지만 수술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을 방치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의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마땅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신청창을 통해 신청

흡연·음주·비만땐 발병 위험 2배 상승

생활 속 뇌졸중 예방요령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뇌졸중은 뇌혈관에서서히 문제가 쌓여 혈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혀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으면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뇌졸중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뇌졸중 발생 원인 중 60~70%를 차지하는 고혈압을 주의해야 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4배나 높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식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또 적정 체중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흡연과 음주를 삼가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위험을 2배 가까이 높이기 때문이다. 과음 후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술을 마시지 않는 음주 휴일을 갖는 것도 좋다.

비만 역시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비만은 뇌졸중 위험을 2배 높이는 만큼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만 비만인 경우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허리둘레가 1인치 늘어날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김정모 서울시 북부병원 뇌졸중 예방클리닉 과장은 "식습관 관리를 통한 체중 조절과 함께 금연·절주가 필수적"이라며 "뇌졸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릿하고 말이 어눌해지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류머티즘관절염 '골절률 4배'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 높고 주로 척추·손목 부러져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KORONA' 코호트 연구 결과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표준화 골절 발생률이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는 KORONA에 등록된 3557명의 환자(여성 3049명·남성 508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상연구센터는 이 환자들의 골절 발생률과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일반 성인 집단의 골절 유병률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 유병률은 1년 기준 10만 명당 213명으로 일반 성인 집단의 골절 유병률(56.21명)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절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위는 척추 및 손목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밀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KORONA 등록 시점 이전 2년간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 환자는 31.5%로 전체 환자 중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45.2%만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다.

심승철 대한류마티스학회 홍보이사는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골다공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손기정 공원 가꿔

한국릴리는 최근 '세계 봉사의 날'을 맞이 서울시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공원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봉사의 날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날 한시에 진행하는 전사적인 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 세계 릴리 직원 중 약 2만여 명이 지역사회를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릴리는 향후 1년간 정기적인 공원 가꾸기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류현진 "초반 실점 안할 것"

류현진(26 · LA 다저스)이 꿈의 전동회의 팀을 구해내겠다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졌다.

다저스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7전4선승제)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1~2차전을 모두 내주고 위기에 몰린 가운데 15일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릴 3차전의 선발투수로 나선 류현진은 결전을 하루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원정 2연패로 부담은 있지만 초반 실점 없이 이기는 투구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애덤 웨인라이트와 맞대결을 펼칠 류현진은 "투수가 아닌 타자와 대결하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적당히 긴장하고 던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박인비 "1위 저력 보시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 외환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인천을 찾는 박인비(25 · KB금융그룹 · 사진)가 이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14일 대회장인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인비는 후반기 2승을 하며 자신을 바짝 쫓고 있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페테르센과 같은 훌륭한 선수와 경기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올 시즌 6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 1위와 상금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유순호기자

짜릿한 홈런 공방…두산 웃다

박병호 9회말 동점 스리런 · 최준석 · 오재원 13회 맞불

■준플레이오프 5차전(14일 · 목동)

두산	000	300	000	0005	8
넥센	000	000	003	0002	5

▲승 오현택 ▲패 강윤구 ▲홈런 이원석 3호(4회 3점) 최준석 3호(13회 1점) 오재원 1호(13회 3점, 이상 두산) 박병호 1호(9회 3점) 이택근 1호(13회 2점, 이상 넥센)

'뚝심'의 두산 베어스가 넥센히어로즈를 상대로 2010년의 짜릿한 승리를 재현했다.

두산은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연장 13회 터진 최준석의 솔로포와 오재원의 스리런에 힘입어 8-5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두산은 준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 것. 두산은 지난 2010년에도 롯데를 상대로 2연패 뒤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바 있다.

두산은 16일부터 정규시즌 2위 LG 트윈스와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날 승부는 연장 13회에 갈렸다. 두산은 4회초 이원석의 스리런이 터지며 3-0으로 앞서 갔지만 9회말 넥센 박병호가 극적인 동점 3점포를 날려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13회 공격에 나선 두산은 이종욱을 대신해 대타 최준석을 내세웠다. 최준석은 넥센 구원투수 강윤구의 공을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산은 정수빈의 볼넷과 상대 캐스트(실)로 만든 찬스에서 민병헌의 적시타로 한 점을 보탰다. 이어 2사 1, 2루에서는 오재원이 승리를 확인하는 쐐기 3점포를 날리며 8-3까지 달아났다. 이날 승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넥센은 13회말 공격에서 이택근의 투런 홈런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김성훈기자 ygw@metroseoul.co.kr

박병호 9회말 극적 3점포 날렸지만 넥센 4번타자 박병호가 14일 열린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0-3으로 뒤지던 9회 말 믿을 수 없는 3점 홈런을 날려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연합뉴스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용병 3명까지…용병타자 시대 다시 온다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3명으로 늘어난다. 각 구단마다 불똥이 튀었다. 늘어나는 한 명은 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쓸 만한 외국인 타자를 찾기 위해 스카우터들이 다시 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한도를 늘리는 이유에는 프로야구의 위기감이 반영된 듯하다. 요즘 우리 야구가 재미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투수 위주의 경기에 공격도 잔재미는 있는데 큰 재미, 즉 홈런이 펑펑 터지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홈런은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효과를 갖고 있다. 14일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리그(ALCS) 2차전에서 보스턴 데이비드 오티스는 1-5로 뒤진 8회말 2사 만루에서 홈런을 터트려 역전승을 이끌었고 시리즈 흐름을 가져왔다. 이것이 홈런의 진짜 맛이다.

최근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가 등장해 토종 홈런 타자의 명맥을 잇고 있다. 그러나 홈런 부문은 소수의 싱거운 잔치였다. 각 구단들이 외국인을 모두 투수로 영입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내년에 외국인 강타자들이 가세하면 토종 선수들과 박진감 넘치는 홈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큰 재미를 주는 외국인 타자를 영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외국인 타자들이 한국 투수들을 상대로 30개 홈런을 터트리기는 쉬지 않다. 한국 투수들은 유인구와 변화구가 많다. 스트라이크존도 약간 다르다. 무작정 홈런 스윙만 하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처럼 넘치는 힘과 기술, 선구안이 있다면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타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힘은 있지만 한두 가지는 빠지는 타자들이다. 몸값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돈을 들여 모셔와도 역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스카우터 사이에서는 투수보다 타자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역대 외국인 타자 가운데 성공한 타자는 몇몇 되지 않는다. 펠릭스 호세(롯데), 타이론 우즈(두산), 댄 로마이어(한화), 제이 데이비스(한화) 정도다. 팀의 운명을 걸어지는 강타자 용병 선택을 놓고 도박이 다시 벌어진 셈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e are ready to order. 외식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이제 디저트 드실래요?
B. I'd like to see the menu again, please.
A. Here you are, Ms. 아이스크림은 또한 세 가지 맛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B. What are they?
A. 저희 식당에는 바닐라, 초콜릿, 그리고 딸기 맛이 있습니다.

정답 Would you like some dessert now? / You also have your choice of three flavors of ice cream. / We have vanilla, chocolate, and strawberry.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How many are in your party?
일행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party는 '일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행이 모두 4명이에요'라고 할 때 We have four in our party 라고 답하면 됩니다. 또 짧고 빠른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Four 라고 만 해도 됩니다.

현재진행시제 긍정문

▶ be동사 뒤에 동사원형+ing를 쓴다

주어	be동사	
I	am	V-ing
he/she/it	is	
we/you/they	are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박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am writing an e-mail now. 나는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어.
2. She's driving. 그녀는 운전을 하고 있어.
3. My parents are traveling now. 우리 부모님은 여행 중이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Flash photography is not permitted ______ the Salure Museum of Art.
(A) onto (B) among
(C) inside (D) toward

02 Dr. Weisman, who served for 25 years as an ______ part of the research team, will retire on March 30.
(A) integrate (B) integrally
(C) integration (D) integral

01 정답 (D) inside

02 정답 (D) integral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느낌 및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

It looks like ~처럼 보입니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 It is a beautiful day for a picnic. 소풍 가기 좋은 날로 보입니다. / this is a famous place. 이곳은 유명한 곳으로 보입니다.

It looks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quiet. 조용한, 한가한		clean. 깨끗한	
		popular		cozy. 아늑한	
		interesting		peaceful 평화로운	
		pleasant 유쾌한		boring 지루한	
	날씨	warm 따뜻한		cold 추운	
		chilly 쌀쌀한		sunny 화창한	
		hot 더운		foggy 안개 낀	

부라보콘 상단 내면에 **"당첨"**이 나오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1등 LG 디오스 냉장고(820L) 3명
2등 삼성 LED TV(40인치) 4명
3등 아이패드4(16G) 8명
4등 삼성 로봇청소기 10명
5등 황금열쇠(금 3.75g) 20명
6등 부라보콘 1박스 100명
7등 영화관람권(1인 2매) 200명
행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0명

※당첨 시 상단 내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후, 당첨 인쇄된 상단부분 발송

자세한 참여방법은 www.ht.co.kr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까지

경품지급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5만원이상(1등~5등) 경품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22%)이 부담됩니다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경품수령)는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입니다